



글 김규나

임유이그림

성장소설 최초의 당신

《207》 세월을 건너 완성된 인연

봄볕에 녹아 사라지는 겨울 눈처럼, 그리움이 완성되자 급격히 당신의 기억은 소진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동실 떠올라 거실을 환하게 내리비추던 크리스마스 이브, 당신은 내 무릎을 베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어둠을 완강히 밀어내던 밤, 당신과 함께 둥근 달을 바라보고 싶었던 38년 전 나의 바람을 당신은 그렇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내 곁에 누웠고, 나는 미하엘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당신과 영분, 미하엘과 나, 참으로 오랜 세월을 건너 네 사람의 인연이 완성되었습니다.

젊은 날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걱정과 갈망, 그리움과 기다림, 미움과 원망이 뒤섞인 혼란이었지요. 움켜쥐려 했으나 사랑은 언제나 달빛처럼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는 아직은 낯선 수용자 번호가 왼쪽 가슴에, 나를 가둔 방의 위치가 새겨진 표찰이 오른쪽 가슴에 붙어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목망하는지 알게 된다면 내 존재의 의미도 알 수 있리라 여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강무환이라는 이름 대신 식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숫자가 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었다.

죄를 저질렀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나는 죄인도 아니었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이 유보된 상태, 나는 미결수였다.

그날 눈을 떴을 때, 푸르스름한 빛이 시시각각 강도를 달리하며 번쩍거렸다. 나는 빛을 쫓아 장면을 바꿀 때마다 실내의 조도를 바꾸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낮설게 쳐다보았다.

지난밤 음량을 줄인 채 켜 놓았던 TV



하지만 미하엘이 햇빛 같은 사랑이었던, 당신은 나의 어둠을 비추는 달이었습니다.

주절, 나는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하엘을 사랑했고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미하엘을 잃고 당신을 잃어서 슬프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머칠 전 변호사가 전해 준 예바의 노트를 나는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창살이 촘촘히 박힌 작은 유리창을 올려다보았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고, 하늘은 낮고 흐렸다.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되어 온 지 열흘째였다. 내가 입고 있는 열은 오랜저밧의 수인복에

의 아침뉴스가 스튜디오와 현장을 번갈아 내보내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신데렐라의 알람이 울렸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손을 뻗어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스마트폰을 켰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12월21일 월요일 오전 5시4분. 나는 눈을 힘주어 깜빡여 보았다. 부스스, 몸을 일으켜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멀쩡했다. 가시도, 통증도 없었다.

얼굴에는 생기마저 들었다. 최 박사가 말한 약효의 지속 시간이 끝났어야 할, 심장에 박힌 시한폭탄이 붕, 터졌어야 할 밤 12시를 훌쩍 넘기고도 나는 살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집안을 휘둘러보았다.

민화작가·태권도인 만남 피붙이 같은 인생 동반자

인간의 세계 김소선 '놀자전' 작가·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부부

김소선 작가에 그림이란

잘 그리는 것보다 더 즐기
내년 1월 신년 초대전 준비
땀땀 해, 귀여운 뱀 기대를

이규석 회장엔 태권도란

폭력 도구 아닌 예절이 기본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무도
선행 베푸는 게 삶의 지향점

우리는 그리지 않고 논다! '놀자전'이 서울 중구 퇴계로 소선갤러리에서 9월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열렸다.

한 달여 전시를 잘 마무리지은 김소선 작가와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부부를 소선갤러리에서 만났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합니다”

김소선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63학번 출신으로 60세에 민화를 그리기 시작해 20년 이상 호랑이까치야옹 그림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전통 민화를 서양화 기법인 유화와 융합시켜 한국의 전통과 풍속민족적 정신을 세계가 공유하는 작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규석 회장은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이자 아시아태권도연맹(WTA)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한국체육대학교·용인대학교·가천대학교에 태권도학과를 창설한 장본인으로 2007년 퇴임까지 태권도 4단 이상의 제자를 2000명 넘게 양성한 국내 태권도계의 원로다.

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종목에 품새경기가 채택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도 국내외 태권도 발전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현역으로 뛰는 중이다.

퇴계로 인쇄소 골목에 자리한 소선갤러리는 김소선·이규석 부부가 신혼살림을



김소선(위 오른쪽) 작가는 남편 이규석(왼쪽) 회장이 태권도 품새 시연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다. ① 2019년 당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이 방한해 국회 회관에서 정세균(오른쪽) 총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뒤에 걸린 그림을 그린 이가 김소선 작가다. ② 2024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 금메달 시상식에 나선 이규석(오른쪽) 회장. 박미나 선임기자·김소선 작가·아시아태권도연맹

차렸던 뜻깊은 장소다. 지하는 수장고 및 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1층은 인쇄소에 자리를 내주었다. 2층이 전시 공간인 소선갤러리다.

신혼집을 팔지 않고 갤러리로 꾸밀 만큼 두 사람은 인교부부로 소문이 났다.

태권도는 무도... 한체대에 태권도학과 개설

이규석 회장은 세계 최초로 태권도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한체대에 태권도학과를 개설한 그는 이어 용인대와 가천대에도 태권도학과를 개설했다.

“태권도는 무도입니다. 일반 체육은 코치가 가르치지만 태권도는 사범이 가르칩니다. 타인의 스승이요 모범이 되는 사람을 사범이라고 합니다. 태권도의 기본은 예입니다. 한자 禮(예)는 示(시)와 豊(풍)의 합성어로 示는 신(神)에게 제사지내는 제단을 나타내고 豊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초월자에게 뜻을 묻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올사년 기해 뱀 민화 전시회 기획

김소선 작가는 전에는 잘 그리는 게 목적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즐기면서 그리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눈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래서 전시회 주제도 ‘놀자전’이 됐죠. 이번 놀자전에는 서울대학교 미대 동창 세 명이 참여했어요.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해 보지 않은 전시회를 해 보자 해서 의기투합했죠. 사람들 반응이 좋아 앞으로 2만·3만도 하려고 합니다.”

김 작가는 내년 1월 광화문에 있는 ‘갤러리 내일’에서 신년 초대전을 앞두고 있다. 해마다 해당 피의 동물을 그리는데 내년은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친근한 형태의 뱀을 그림 생각이다.

이규석 회장은 지금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실이 성남에 있는데 향후 올림픽회관에 입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대한체육회와의 공조도 쉬워지고 정보 교환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내년 1월 광화문에 있는 ‘갤러리 내일’에서 신년 초대전을 앞두고 있다. 해마다 해당 피의 동물을 그리는데 내년은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친근한 형태의 뱀을 그림 생각이다.

이규석 회장은 지금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실이 성남에 있는데 향후 올림픽회관에 입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대한체육회와의 공조도 쉬워지고 정보 교환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김소선 작가·이규석 부부

인류 역사를 바꾼 동물과 수의학

“인간은 동물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동물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대 문명은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가 18,000원

도서출판 MAYA

- 동물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책 '사피언스'. 이스라엘에 유발 하라리가 있다면 한국엔 임동주가 있다. **前 매경닷컴 대표, 윤영결 시사평론가**
- 의사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일반인도 꼭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임정수 변호사**
-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꼭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前 세브란스병원장, 문병수 소화기내과 교수**
- 임동주 박사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前 서울대 수의대 학장 박용호 명예교수**
- 자연과학의 지침서이며 수의학을 자연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인문사회학을 조화롭게 융합시켰다. **서울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장 서강문 교수**
- 임동주 교수의 이 책은 동물과 수의학의 '총·균·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스카이텔레리 대표 조정진**

수의학박사 前서울대겸임교수
저자 **임동주**